주 35시간제·돌봄 휴가…광주신세계 가족친화경영 눈길

가족돌봄휴직 1~3개월·의료비 1000만원·전입 사원 사택 제공

선도적 복지 시스템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광주신세계가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지속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고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복지 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에 전국을 대표하는 가족친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8일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심사에서 92.7점이라는 성적을 받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는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 포함된다. 신규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심사 항목별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10점, 가족친화 실행제도 54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 10점, 가점 10점을 획득했다. 광주신세계가 실시하고 있는 주35시간제 근무, 육아휴직, 연차사용 등이 자유롭다는 점이 직원들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신세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연차 외 근속 3개월 이후 연중휴가 5일을 추가 부여한다. 가족의 긴급한 질병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할 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가족돌봄휴직도 1~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근속 3년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종합검진을 근속 3년 미만 사원에게는 일반검진을 지원하며,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제공, 난임치료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근속 10년 전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광주로 전입 온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신청 시 서구 일대의 오피스텔형 사택을 제공한다. 현재 기준 10명의 직원이 사택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증 심사에서 만점을 획득한 최고경영층 리더십 부문에서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한가족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한가족협의회는 직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원대표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임직원들이 원하는 복지혜택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경영진이 협의회 논의 결과를 복지 개선사항에 반영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 김성춘 사원대표(왼쪽)와 김기웅 지원팀장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실제 한가족협의회에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운영 검토를 요청한 데 따라 광주신세계는 '여름방학 과학키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복지 개선 요청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범위 확대, 혹서기 근무환경 점검, 다자녀·다태아 관련 지원 등 복지 확대, 사원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입했다.

이처럼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한 결과 광주신세계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률은 92%로 전국의 대기업 중에서도 우수한 수준이며,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후 고용 유지율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율도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뤄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근무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최우수상

우수 웹사이트 선정 시상

새롭게 단장된 HS효성첨단소재 홈페이지가 주요 웹 디자인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우수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국내 대표 웹 시상식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HS효성 지주사의 대상 수상에 이은 성과로 그룹 차원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웹어워드 코리아 2025'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며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이다. 비주얼 디자인, 콘텐츠 구성, 기술 완성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지난 5월 새롭게 단장한 HS효성첨단소재 홈페이지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글로벌 소재기업'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며 탄소섬유, 아라미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미래지향적인 핵심어를 HS효성의 '슈퍼그래픽'을 활용한 세련된 비주얼로 표현해 기업 대 기업(B2B) 고객과 투자자에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파트너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창석(왼쪽) HS효성첨단소재 홍보담당 상무와 정한나 브랜드팀 프로가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최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또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2일 반포한강공원 채빛섬에서 열린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2025'에서 같은 홈페이지로 브론즈상을 수상하며 국제 디자인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원으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세계 디자인 시상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빨라진다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외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연금 상품 아냐"

민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최근 주요 민원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10%→40% 상향

예식장 취소 페널티 강화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으며.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약 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올해 '개미' 10명 중 7명 주식으로 돈 벌었다

평균 912만원…절반 100만원 이하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0%가 수익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33.0%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고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수익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액 '100만원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2.3%, '1000만원 초과'가 13.3%였다.

손실액 구간은 '100만원 이하' 57.1%,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0.1%, '1000만원 초과' 12.9% 순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이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18.6%는 평균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수익을 실현한 고객의 매도 단가는 '7만~8만원대'가 35.0%로 최다였고, '5만~6만원대' 34.2%, '9만원 이상' 30.9%가 뒤를 이었다. 주가가 1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던 시점에 매도한 비율은 0.5%에 그쳤다.

손실을 본 고객의 매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53.3%로 과반을 차지했고, '7만~8만원대' 32.3%, '9만원 이상' 14.4%였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종목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71.3%가 수익을 실현했고, 코스닥 종목 매도 고객은 수익(52.8%)과 손실(47.2%) 비중이 비슷했다.

올해 고객 수 기준 코스피 수익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됐다. 손실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NAVER가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로보티즈,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수익 상위 종목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휴림로봇은 손실 상위 종목에 들어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994.51 (-61.90)
↓	코스닥	901.33 (-9.74)
↓	금리 (국고채 3년)	2.967 (-0.029)
↓	환율 (US D) 〈오후 5시 33분 기준〉	1477.60 (-2.20)

강력한 주름 제거 기능 탑재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스팀다리미처럼 강력한 주름 제거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의류청정기 신제품을 공개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 앞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는 구겨진 옷의 주름을 스팀다리미처럼 펴주는 '주름집중케어'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주름집중케어 기능은 강력한 바람과 고온 스팀으로 구겨진 옷을 빠르고 말끔하게 관리해주며 탈취 기능까지 갖췄다.

이번 신제품은 매끄러운 일체감을 살린 '원바디' 디자인을 적용해 드레스룸, 거실, 현관 등 집안 여러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또 제품을 조작하는 화면 위치를 높여 성인 사용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편하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 화면 크기도 2.8형으로 기존 대비 넓어졌다.

삼성전자 2026년형 에어드레서. 〈삼성전자 제공〉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연동하면 세탁부터 의류 관리까지 이어지는 차별화된 의류 관리도 가능하다. 블라우스 등 섬세 의류를 관리하기 위해 비스포크 AI 콤보에서 '블라우스 코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에어드레서에도 '블라우스건조 코스'가 설정된다. 비스포크 AI 콤보로 옷감 맞춤 세탁을 진행한 뒤 에어드레서로 연동된 코스에 따라 섬세하게 건조해 주름을 관리할 수 있다.

문종승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일상 속 의류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제품에 혁신 기술을 집약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며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